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8월 5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0장 17-21절

설교제목 :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작년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 함께’ 죄와 벌 편에 이어서 신과 함께 ‘인과 연’ 편이 얼마 전 개봉되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전반적으로 불교의 내세관을 따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거나, 죽으면 영혼이 사멸한다거나, 혹은 이 영화 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의 기회가 있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의 실재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41에서 지옥은 ‘**영원한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살후 1:8-9에서는 명확하게 지옥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49-50에서는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는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지옥을 ‘**둘째 사망의 장소**’로 이야기 합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지옥은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지옥은 다음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옥은 **감정적 고통을 영원하게 느끼는 곳**입니다.(마13:49-50) 두 번째로 지옥은 **육체적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눅16:24) 세 번째는 지옥은 **관계적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눅16:23) 네 번째로, 지옥에서 겪는 고통 중에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대략 45km였기에 거리상으로 하루에 오기 힘든 거리입니다. 따라서, 추측해 보면, 적어도 바울의 밀레도에서 삼일 정도 머문 이후에나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3년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17절) 18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의 고별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의 고별설교의 첫 단락인데,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행했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바울은 고별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의 자신의 사역의 원리는 겸손과 눈물이었으며 자신은 유익한 교훈들을 주저없이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였다고 회상하였습니다.(19-21절) 서두에 말씀드린 **신과 함께** 라는 영화가 강조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주인공 차태연은 병든 엄마를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폭행했던 죄의 댓가를 15년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그 죄의 댓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엄마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단다**’라는 말에 모든 죄값이 치러지게 됩니다. 실은 그 마지막 엄마의 말이 우리의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습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치루기 위해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행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복음을 전하며 산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힘써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죄를 갚으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멋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지옥은 어떤 곳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동안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율법적인 종교나, 세상 사람들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죄의 값을 치루기 위해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을 자신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살든지, 자신의 죄값을 치루어야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죄의 처리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더불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